

섬유연합회, 한국형 인증시스템 개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제품의 안정성과 친환경성 관련 한국형 인증시스템인 에코텍(Korea Eco Textile Certification)을 개발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9월3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섬유제품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제조공정에서의 공해물질 배출기준을 확립했으며, 앞으로 섬유 소재 생산부터 유통·폐기까지 전체 사용주기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연합회는 본부에 인증센터를 두고 3개 국가공인시험연구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에코텍을 운영한다.

또 에코텍 개발을 계기로 단기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사이의 섬유인증제 상호 인정을 위해 힘쓰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인증마크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에코텍은 우리나라 섬유제품이 국제표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코텍은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말 인증기준과 절차가 최종 확정되고,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2/09/04>